

<기행문>

고향이 거기 있었네 - 미국 청년 고향 묘제 참배기 -

용 환(鏞歡)

장선 종원, 미국거주

편집자 주 : 필자는 고 성욱공(故成郁公)의 손자로 미국명은 Caleb Yonghwan Lee 다. 이민 3세로 그의 삼형제가 모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으며, 이 글을 쓴 용환은 집안의 장남이며, 풀브라이트 장학생이었고 2017년~2018년 중 한국 전주 영생고에서 영어교사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미국 SanFrancisco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글은 2017년 장선 묘제에 참석 후 쓴 후기로 풀브라이트 잡지에 실렸던 것을 재종숙인 혁희(赫熙)가 번역하였다

“이렇게 하는 집이 별로 없다” 그분이 말했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이지.”

정말 이런 행사를 하는 집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혁희 아재가 마지막 남은 사람 중 한 분이시다. 집안의 유사(有司)인 혁희 아재는 당면한 큰일을 앞장서서 실행하며 묘사 당일 각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산소에 참배해야 하는지, 또 울창한 소나무 가지를 뚫고 길을 찾아가는 방법 등의 임무를 모두에게 지시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아침 산책 후 재킷 뒷부분에 계급장처럼 씨앗과 가시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그분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는 한때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에 걸맞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보다시피 오늘 모인 친척은 모두 50대 아니면 60대야”라고 아재는 어깨너머로 내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오지.”

그분은 63세다. 산의 남쪽 사면(斜面) 아래로 이리저리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짐작한 것보다 8살이나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과거에 미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영어를 말할 수 있었다. 22세인 나는 그날 막내는 아니었지만 - 사촌인 동생인 중학생 은서가 있었기에- 아재의 말은 사실이였다. 왜냐하면 참석자 모두가 우리 위로 거의 25년이라는 눈에 띄는 연령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화산 숲을 헤쳐나가야 했는데 오르락내리락하며 어느 곳도 곧바로 난 길은 없었다.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와 두 살 많은 큰할아버지 그리고 7살 아래의 작은 할아버지 삼 형제가 함께 자랐던 뒷산이다. 우리 형제들의 나이 차이도 그와 비슷하다.

집안의 근거지인 소도시 밀양을 내려다보는 추화산은 높이가 243m다. 그 날 아침 만난 먼 친척이 그날 사용할 제수용품(祭需用品) 한 묶음을 내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산소 하단의 상석에 진설(陳設)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는 산신에게 조상의 영을 보호해주신데 대한 예를 갖추고 절을 해야 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땅속에 계신 분은 거꾸로 추적이 가능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계의 31대손 중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게 정말 산신이 보호한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노라면 주위는 감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덩굴식물들의 낙엽 때문에 발걸음을 땔 때마다 바스락거렸고 큰 길 외에 대부분의 소로(小路)는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안전하게 발 디딜 곳조차 찾기 힘들었다.

길을 따라 조그맣게 줄지어 있는 평범한 산소는 버려진 흙더미로 보여 지나치기 일쑤다.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된 이곳 세 위의 산소는 달랐다. 줄이 맞고 밭치의 묘비석은 반쯤 묻혀있었다. 멀리 다른 팀이 첫 참배를 시작할 즈음, 혁희 아재는 약 200년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윗대와 분리되어 처음 여기에 묻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상자의 뚜껑을 열고, 떡 포장을 벗기고 달려드는 파리를 손을 저어 쫓으며 건어와 오징어를 스티로폼 접시에 담았다. 사과, 밤, 감, 꿀은 플라스틱 상자에 그대로 두고, 둥근 접시에 담은 제수(祭需)를 상석 위에 진설했다. 매실주를 따를 작은 종이컵도 준비되었다. 잔디 위에는 향(香)을 꽂았다. 이로써 준비가 완료되었다.

혁희 아재가 먼저 절했다. 두 손으로 읊(掛)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잠시 부복했다. 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절한 후에는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살아있는 누군가에게는 절 한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절 두 번, 그리고 임금에게는 네 번 절한다고 삼촌 가운데 한 분이 내게 한국어로 귀띔했다.

또 다른 친척이 혁희 아재의 바로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종이컵에 매실주를 따랐고, 혁희 아재는 이를 받아 묘석 위 허공에서 네 번 원을 그린 다음 상석의 앞면에 술을 부었다.



Homecoming

Caleb Y. Lee

"There's not many families left that do this," he said. "We are one of the last." If we were indeed among the few remaining, then 혁희 삼촌, Uncle Hyeokhee, is the last of the last.

As the current elected representative head of the family, Uncle Hyeokhee carried the torch for the task at hand, directing others where to go, which burial mounds to see and how to navigate through the thick pine branches. In the moment, I imagine it's the *durumagi* he's wearing that signals this position, the chestnut seedlings and thorns from the morning bike snack like insignias to his back. He used to be a Korean Army colonel, or so I've heard, and his aura befits this rank.

"So you see, all the relatives that gathered today are 50 or 60," he called out to me over his shoulder. "There are few young people that come these days."

He's 63, eight years older than the guess I gave him as we weaved our way down the southern side of the mountain. Luckily for me, he spoke English with relative ease, having worked at an American company in the past. At 22, I was not the youngest present that day—my second cousin Earnes had that honor as a middle schooler—but Uncle Hyeokhee was right; after us 젊은 사람, or younger people, there was a conspicuous age gap of almost 25 years.

We were to trek through the woods of 주회산, or Chulwa Mountain—sometimes up, sometimes down and never in a straight line. This was the backyard of three brothers that grew up together: my grandfather, his brother two years his elder and the youngest by seven years. I couldn't help but note how similar the gaps were to that of me and my own brothers.

It was 243 meters to the peak of Chulwa, which overlooked the small village of 밀양, Miryang, the family hometown. A distant relative I had met that morning handed me a pack filled with the ceremonial provisions for the day. We were to set these at the foot

of the family burial mounds—but first, we had to set out an offering and bow to the spirits thought to be protecting these parts.

Kowtowing to ghosts would have been a laughable proposition a few months ago. But when you find out that you are a part of the 31st official generation of a family branch whose history can easily be traced back over a thousand years, and you ask yourself whether this supposed mountain spirit has done its job... You'd probably bow too.

<용환의 기사가 실렸던 2018년도 폴브라이트 잡지의 원문 내용>

다음으로, 이번에는 넘치도록 가득 잔을 다시 채워 상석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두꺼운 한지에 쓴 제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무덤은 8대 조모 산소로 이 비석은 오늘날 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도에서 할머니의 오라버니가 보낸 것이라고 한다. 제문은 각 산소의 주인을 식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뒷부분 내용은 모두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서리와 찬 이슬이 내렸나이다.
묘역을 성소 하오니 추모의 마음 간절하와
삼가 정결한 찬수로 시사를 드리오니 잡수시옵소서.

마지막 음절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나무를 통해 울려 퍼지고, 조상은 영적으로 드시며 이 정성들을 받아드리는 소리가 가을바람으로 바뀐 듯 했다.

마침내, 혁희 아재는 퇴주를 반 정도 마신 뒤 나머지는 상석의 앞면에 다시 부었다. 그분은 일어섰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몇 명이 같은 과정을 되풀이했다.

“일동 재배”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우리들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이로써 오늘의 많은 묘제 가운데 첫 번째 의식이 끝났다.

11월의 분위기가 주는 정신적 유산은 그날 나에게 특히 강하게 느껴졌고, 혁희 아재는 우리가 덩불을 헤치며 다음 산소로 가기 위해 길을 내려갈 때, 내가 한국의 종교적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대학에서 동아시아 연구 과정을 수강한 덕분에 14세기 후반 조선의 건국으로 지배적 종교가 불교가 유교로 전환되었다고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6백 년이 지난 지금, 조선 시대의 유교 이념은 여전히 땅속의 뿌리처럼 이 추화산에서의 모든 행동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은서를 제외하고, 산에 올라 온 제관 20여 명은 모두 몇 세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가부장제도 아래 이씨 집안의 남자 자손이었다. 여성들은 이른 아침 식사로 오전 8시 30분에 갈치조림, 삶은 무와 맵고 부드러운 두부, 조개류와 나물무침 등 다채로운 반찬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이 연례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남성들의 의무인 것 같았다. 단지 나에게만 두드러지게 보였던 남녀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여성들은 옹고 그림,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의문 없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였다. 변함없이 항상 해오던 것에 대한 확고한 수용만이 있을 뿐이었다.

유교에 바탕을 둔 전통적 논리는 성(性) 역할 이상으로까지 확장되었다. 63세의 혁희 아재는 나의 종조부가 79세 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첫 번째 산소에서 초헌(初獻)하였다.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혁희 아재는 자신이 종손의 맏아들 대신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세가 많은 친척이 있더라도 종손에게 우선적인 봉헌(奉獻)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현실이었으므로 올바른 순서를 집행함에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용환의 기사가 실렸던 2018년도 폴브라이트 잡지의 원문 내용>

그러한 전통은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결

과다. 한 때 상대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고 대부분 불교가 지배했던 이곳은 새로운 가부장적 유교 사회로 바뀌었고, 그다음 6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렸다. 새로운 생각은 국가정책으로 표현되었고, 국가정책은 의례(儀禮)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의례는 정신적 교리로 삶의 일부가 되어 구체화되었다.

서구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성 불평등, 성 역할 및 연공서열과 같은 일반적으로 "후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나의 좌절감은 이제 왜 그런 문화가 발생했는지 근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옮겨갔다. 나는 이제 확실하게 수용하지는 않지만, 아울러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삶의 오래된 방식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6세기 동안 이어온 조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요즘의 시각만으로 그것을 재단하는 것은 가족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핵심 부분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조상들에게 절하고,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은 일단 유보한 채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날은 회고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가시덤불과 낮게 걸린 가지를 피하며 나는 혁희 아재로부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나의 질문을 영어와 한국어로 표현하여 우리 역사의 조각들을 수집하였다.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했지.” 혁희 아재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회고했다. “지금은 점점 줄고 있어!”

우리 집안에는 전직 방송사 사장, 디자인 회사 사장 그리고 국내 최대의 은행장 등 이미 성공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밀양의 과거는 옛 고가(古家)의 퇴색하는 붓글씨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조상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지? 맞아, 빚이 없지.” 혁희 아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너무 바빠, (네 5촌인) 상희조차도 기자로 일하고, 여길 참배하려고 어제 밤새 운전해서 와야 하니 너무 고생이 많잖아?”

시간이란 한 때 물결치던 강을 마르고 좁은 개울로 바뀌게 한다. 가족과 직장 그 외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의무는 과거를 추억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선조들의 산소조차도 해가 갈수록 찾기 어려워진다. 어떤 곳은 전담으로 개간되어 접근할 수가 없고, 어떤 곳은 찾아 올라가는 데 30분이 걸리기도 한다. 결국, 그들은 모두 우거진 산속의 수풀 속에서 풀로 뒤덮인 점처럼 땅 밑으로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밀양을 굽어보는 뒷산에 관한, 사라져가는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흙더미 앞에서 조상에게 절하였던 짧은 순간의 영적 경험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좋아하여 의도적으로 과거를 회피하는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우리 집은, 한때 번성하였을 때조차도 힘들었지만, 해가 갈수록 지도에서 사라지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그만 마을을 내려다보는 작은 뒷산은 나의 인생관을 과거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 그것은 내 삶이 마치 현재가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미래로까지 나아갈 수십 개의 연결고리 위에 있다는 겸손에 대한 반성이다.

But it is difficult to fully convey the ephemeral, almost spiritual experience of kneeling in front of a few mounds of dirt to a generation that deliberately eschews the past in favor of pursuing an independent future.

The logic of this Confucian-grounded tradition stretched beyond gendered roles, however. Uncle Hyeokhee, age 63, was the first to bow at our first gravesite of the day despite the presence of my grandfather's younger brother, age 79.

Having noticed my confused expression, Hyeokhee had explained that he was the elder son of a firstborn ancestor, thus bestowing the highest bowing position upon him despite the presence of older relatives. His tone was matter-of-fact; there was no doubt or hesitation as to the correct order.

Such is the result of tradition neatly passed down by generations. What was once a relatively gender-equal and largely Buddhist region transitioned to the new patriarchal Confucian society, which then rooted itself deeply over the next six-plus centuries. New ideas were expressed as doctrine, doctrine developed into rituals and these rituals crystallized the spiritual doctrine into facts of life.

Over the years, my frustration of the many aspects of Korea that Westerners might call "backwardness"—such as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gendered roles and age hierarchy—has migrated

towards a begrudging understanding of their source. Certainly not acceptance, but not a complete rejection either.

To invalidate the old way of life would be to deny the validity of six centuries of ancestors. To attack it with only a modern lens would be to forfeit a key piece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family history. And so I bowed to ancestors that day, pushing aside conflicting thoughts and exchanging them for an open mind. This was not the time for looking back, I thought to myself, even as we connected with the past.

Simultaneously avoiding thorn brambles and low-hanging branches, I pulled bits and pieces of our history from Uncle Hyeokhee, using both English and Korean to frame my questions as precisely as I could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Even five or ten years ago when we did this, many more people would attend," Uncle Hyeokhee reflected, wiping the sweat from his brow with a handkerchief. "But now there are fewer and fewer of them."

Many in the family had become extremely successful—a former MBC

television chief executive here, head of a design firm here, executive of one of the largest Korean banks there. But even for them, the ones still in Korea, the past in Miryang is fading as quickly as the ink calligraphy hanging over the threshold of the family's ancestral home.

"These days, young people don't feel like they owe their ancestors debt—debt is the right word, isn't it?" Uncle Hyeokhee sighed. "They are so busy—even Uncle Sanghee had to drive here all night after work as a reporter. 많이 고생했네요—He went through a big just to get here."

Time is a comically running dry like a weak stream that was once a pulsing river. Families, jobs and other life obligations of the now push the past further from memory. Even the burial mounds become tougher to find with each passing year; one was completely obstructed by a farmer's field and another took a 30-minute hike to find. Eventually, they will all fade into the mountainside, grassy mounds dotting a forested mountain, remembered by few and visited by fewer.

I am one of the fortunate ones able to experience the dwindling legacy of the mountain overlooking Miryang. But it is difficult to fully convey the ephemeral, almost spiritual experience of kneeling

in front of a few mounds of dirt to a generation that deliberately eschews the past in favor of pursuing an independent future. Even sougher still when what was once our home is but a small dot that appears on fewer and fewer maps each passing year.

Yet the small hill overlooking our insignificant town keeps my outlook rooted in a deeper past. It is a reminder for humility, for my life is but one on a chain of dozens that will someday stretch as far into the future as it now does into the past.

Before trekking up the mountain that morning, I had thought I was visiting Miryang as a part of a filial duty to my extended family. But as I craned my neck over the backseat of the car to catch a glimpse of the short peak one last time, I knew that I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history permeating this place any more than I could remove the Korean-ness from my blood.

I am one of them, from the others visiting the village that morning to the ancestors buried on the hill, and no citizenship document, language barrier or ocean between us will change that fact.

Copyright © Lee Jia, 2017. 2018. All rights reserved. High School in Anany, Jeonju, South Korea.



<용환의 기사가 실렸던 2018년도 폴브라이트 잡지의 원문 내용>

그날 아침에 산을 오르기 전까지 나는 먼 친척에 대한 자손 된 도리로 밀양을 방문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차 뒷좌석에서 목을 길게 빼고 얼핏 가까운 봉우리 하나를 보면서,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한국인임을 애기보다 역사가 스며든 이 땅으로부터 더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산 위의 조상들을 방문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국적이거나 언어 장벽 또는 우리 사이에 놓인 바다 등 어떤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